

광주·전남선수단 “전국체전서 고향 빛내자”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최근 경북 구미 등지에서 열리는 10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각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 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돼 고등부 경기만 치러진다.



전남도체육고등학교 선수단 결단식

8일부터 경북 구미서 열전... 결단식 열고 선전 다짐 광주 35개 종목 414명·전남 36개 종목 452명 출전

광주와 전남체육이 2년 만에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역대 최초 고등부만 개최하는 점을 고려해 결단식은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 광주시체육회 임원, 선수단 등 25명이 참석, 약식으로 열렸다.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해 ㈜대성포장산업, 광주은행 등 각 기관 단체에서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체전에 육상 등 총 35개 종목 414명의 고등부 선수들이 출전한다.

사이클 천운영(광주체고)은 이번 대회 2km 개인추발 경기에서 광주에 첫 메달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레슬링 나홍민, 운동현(이상 광주체고)은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올해 전국대회 전관왕에 도전한다. 에어로빅 박혜원, 송창섭, 정성찬(이상 광주체고)은 단체전과 3인조전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시체육회는 축구, 야구, 소프트볼, 검도, 펜싱 등 단체종목에서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병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선수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도 같은 날 전남체육고등학교 인의관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전남체육고등학교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체육회는 애초 결단식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남체고 선수들만 대표로 격려하게 됐다.

전남체육회는 이번 체전에 36개 종목, 709명의 선수단(임원 257명, 선수 452명)이 출전한다.

전남은 육상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최성화(전남체고·세단뛰기), 박도현(문태고·포환던지기), 명민건(문태고, 110mH), 전남선발(4x400mR 1위) 등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사이클도 효자종목으로 꼽힌다.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단체는 김재연(전남체고, 스프린트, 500m독주), 전남선발(단체스프린트) 등이다.

김재주 전남도체육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대회가 축소개최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한 선수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2년 동안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를 위해 고생한 선수들에게 체육회는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면서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경상북도 구미시 등 12개 시군의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대회 규모는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전국체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고등부로 제한된 올해는 2년 전 대회 참가자(3만여명) 수의 10% 수준만 출전할 전망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한대 유도 ‘금빛 메치기’ 추계연맹전 금 1·은 1·동 2



세한대 유도부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추계연맹전에서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다.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유도부가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2021년도 추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김찬(3년)은 남대부 개인전 -66kg급 준결승에서 이지형(청주대)을 맞아업어치기로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이민석(위덕대)을 한발 업어치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승일(1년)은 -81kg급 결승에서 최낙일(한국체대)과 연장 접전 끝에 골든스코어에서 아슬하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정민(2년)은 -60kg급 4강에서 조환근(경기대)에 한판패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세한대는 무제한 7인조 단체전 준결승에서 청주대에 1-4로 무릎을 꿇어 3위에 머물렀다.

세한대 노박환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전경험을 쌓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던 경기력을 되찾은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전국체전을 대비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전국체전 일부부가 취소되어 너무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수영 희망’ 황선우 전국체전 5개 종목 출전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가 고교 시절 마지막 전국체육대회에서 5개 종목에 출전한다.

102회째인 올해 전국체전은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리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등부 경기만 개최된다. 수영 종목은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치른다.

5일 황선우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황선우는 두 종목만 나설 수 있는 개인종목은 남자 자유형 50m와 개인혼영 200m를 선택했다. 그리고 단체전인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에도 출전하기로 했다.

10일 자유형 50m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12일 개인혼영 200m와 계영 400m를 뛰고 14일 혼계영 400m로 이번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황선우의 주 종목은 자유형 100m와 200m다.

황선우는 올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 아시아 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47초56), 자유형 200m 한국 신기록(1분44초62)을 수립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 종목이 아니지만, 양재훈(강원도청)이 가진 자유형 50m 한국 기록(22초16)과 박태환이 2014년 세운 개인혼영 200m 한국 기록(2분00초31) 경신에도 도전한다.

특히 한국 수영의 간판이었던 박태환의 이름을 지워가는 황선우가 개인혼영 200m에서도 박태환의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이번 전국체전은 황선우가 도쿄올림픽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서는 공식 대회다. 학창 시절 마지막 전국체전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신유빈-전지희 12년만에 여자복식 결승행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일본 3-0 완파
신유빈 여자단식서 은메달

한국 여자탁구 ‘신구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한국 선수로는 12년 만에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에 올랐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5일 카타르 루사일에서 열린 2021 도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여자복식 준결승에서 나가사키 미유-안도 미나미(일본) 조를 3-0(11-8 11-8 11-9)으로 제압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두호이켄-리호칭(중국) 조와 정션즈-류싱인(대만) 조의 준결승전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한국 선수들이 아시아선수권 여자복식 결승에 오른 것은 2009년 리쿠나우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경아-박미영 조 이후 12년 만이다.

신유빈과 전지희는 1승만 더 올리면 2000년 도하 대회 이은실-석은미 조 이후 21년 만에 이 대회 금메달을 따내는 한국인이 된다.

신유빈은 전날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하야타 히나에게 1-3(11-7 4-11 8-11 4-11)으로 졌다. 앞서 열린 혼합복식, 남자복식 결승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일본에 거푸 무릎을 꿇었다.

한국 탁구는 대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정영식(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남녀 공히 최고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 이번 대회에 나섰다.

그러나 2020 도쿄올림픽 대표 한 명도 없이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신유빈이 일본 하타야 히나를 상대로 강력한 한 스매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군’으로만 팀을 꾸린 일본 탁구에 결승에서 하루에만 3연패 하며 양국 탁구의 역전된 위상을 절감했다.

다만, 신유빈은 생애 처음으로 국제대회 단식 메

달을 때내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국 선수가 아시아선수권에서 은메달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은 1968년 자카르타 대회 최정숙(은메달) 이후 53년 만이다.

연합뉴스

춘란배 제패한 바둑 신진서 22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

메이저 세계대회까지 제패한 신진서(사진) 9단이 22개월 연속 한국 바둑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0월 프로기사 랭킹에서 1만 285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신진서는 지난달 용성전에서 우승하며 국내 대회 전관왕을 달성했고, 춘란배에서는 중국 탕웨이싱 9단을 2-1로 꺾고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5연승을 달리며 9월 한 달 동안 국내외에서 11승 2패로 맹활약했다.

박정환 9단은 1만34점으로 2위 자리를 지켰다. 변상일 9단이 9941점으로 3위를 유지했다.

갑조리그에서 4승 1패를 거둔 이동훈 9단은 4위로 1계단 올라섰다.

올해 LG배와 농심신라면배, 삼성화재배 와일드카드를 싸늘한 원성진 9단은 2계단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

안성준-김지석 9단은 7-8위로 1계단씩 내려갔다.

이창석 8단이 9위, 강동운 9단이 10위다.

여자 기사 중에서는 최정 9단이 2계단 오른 17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타임 투다이
2관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3관	보이스, 기적
4관	007 노타임 투다이
5관	007 노타임 투다이, 보이스 극장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6관	007 노타임 투다이
9관	007 노타임 투다이, 보이스, 기적
7관 씨네커피	상치와 렌즈의 전설 국영민 풍근은 윗말라 격렬 부산영화국 알추 네명의 용사들 스틸위더, 캔디맨
8관 씨네커피	용과 주근깨 공주, 수색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수시공연
헨젤과 그레텔
일시 : 2021.10.22.(금) ~ 10.23.(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412-2507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